

# 전자책과 전자책도서관이란 무엇인가



김승관\*

《도서관문화》 4월호 특집란에서는 지난 몇 년간 도서관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전자책 도서관 구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전자책'의 생산자, '전자책도서관'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 각각의 입장을 통하여 '전자책' '전자책도서관'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알아보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현장 사서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편집실의 자문에 도움을 준 '북토피아' ([www.booktopia.com](http://www.booktopia.com))에 감사드린다. ■ 편집자 주

## I. 전자책이란

### 1. 전자책의 개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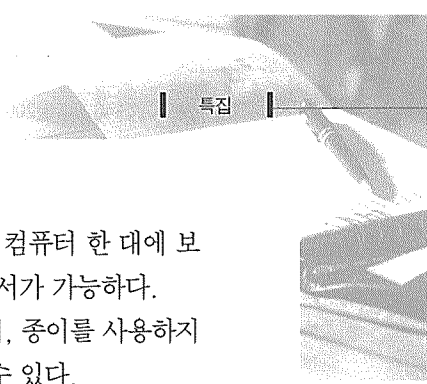
#### 1) 전자책이란

전자책(eBook)은 데스크톱 컴퓨터나 PDA 등의 단말기를 통해 볼 수 있는 디지털화된 책의 총칭이다. 최근 들어 전자책은 컴퓨터나 PDA 이외에도 휴대폰, 휴대용계임기, 휴대용멀티미디어재생기(PMP), 위성DMB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서비스되고 있다.

#### 2) 전자책의 특징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책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웹상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즉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디지털화돼 있어 큰 부피를 차지하지

\* 북토피아 지식정보화사업본부 본부장, [marine@booktopia.com](mailto:marine@booktopia.com)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전자책은 보관이 편리하다. 수만 종에 이르는 책을 컴퓨터 한 대에 보관할 수도 있다. 디지털화 돼 있어 PDA, 핸드폰 등의 휴대 단말기로 독서가 가능하다.

또한 출판비가 없으므로 종이책 가격에 비해 40~50% 정도 저렴하며,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는 미래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전자책의 형식

### 1) XML

현재 가장 일반적인 전자책 형식은 정부 문서 표준 양식에 기반하고 있는 확장성표기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sup>1)</sup> 문서 형식의 전자책이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표준으로 인정한 KS X6100이란 문서표준양식에 기반하고 있다.

XML 문서 형식의 전자책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책 파일의 용량이 작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가 간편하다. 또한 XML 전자책은 간단한 파일 형식을 갖고 있어 호환성이 뛰어나다. 호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데스크톱은 물론 PDA, 휴대폰용으로 변화해 서비스가 가능하다. XML 전자책이 다른 형식의 전자책에 비해 강점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키워드 하나로 전자책 본문 내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도'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책 본문 중 독도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와 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 검색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의 책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책서비스란 출판사에서 도서본문검색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면 네이버 '책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출판사 신간을 홍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 2) PDF

PDF 형식의 전자책은 XML 형식에 비해 이미지를 활용하기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 PDF 전자책의 경우 가독성도 높다. 하지만 실제 이용할 때는 일반 XML 형식의 전자책보다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도표나 그림이 많아 XML 형식의 전자책으로 구현이 어려운 전공서적이거나 그림 위주의 책들이 주로 PDF 전자책으로 만들어진다.

### 3) 멀티미디어 형식

어린이들이 주로 보는 그림책은 주로 플래시 전자책으로 제작된다. 멀티미디어 전자책에는 플래시 이외에도 음향과 애니메이션이 어우러져 카세트와 비디오가 따로 필요 없다. 또한 움직이는 그림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줄 수 있다.

1) XML은 인터넷 웹을 구성하는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 언어. 1996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하였다. HTML보다 홈페이지 구축 기능, 검색 기능 등이 향상되었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한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웹에 추가할 내용을 작성, 관리하기에 쉽게 되어 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 4) 이미지 형식

종이책과 동일한 화면, 레이아웃을 구현한 전자책이다. 즉 우리가 종이책을 볼 때와 같은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 형식의 전자책은 텍스트의 확대나 축소, 보기 등의 기능이 유연하게 구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 II. 전자책도서관이란

### 1. 전자책도서관의 개념 및 특징

#### 1) 전자책도서관이란

전자책도서관이란 앞서 언급한 전자책을 도서관처럼 구비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반납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의미한다.

#### 2) 전자책도서관의 장점

전자책도서관은 지난 2002년 10월 정부의 디지털자료실 구축 사업과 맞물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돼 왔다.

그렇다면 공공, 사설, 대학, 초중고 등 도서관의 성격이 저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자책도서관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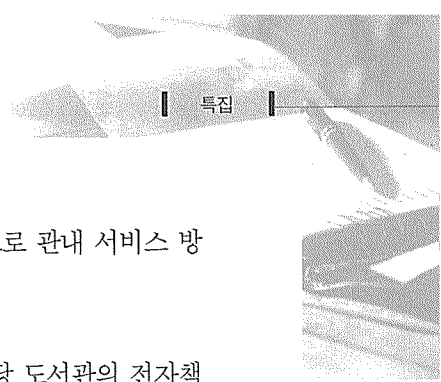
첫 번째로 이용자들에게 시공간에 제약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책도서관의 경우 전자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시공간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일반 도서관의 경우 자료 열람 및 대출 시간이 제한돼 있어,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열람과 대출이 불가능하다. 즉 갑작스럽게 자료가 필요하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책도서관은 시간의 제약이 없다. 늦은 밤 각 도서관의 전자책도서관에 인터넷을 통해 방문해 필요한 자료나 서적을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다.

전자책도서관은 공간적인 제약을 해결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적인 제약이란 도서관 이용자와 도서관 입장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자책도서관을 이용할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나 서적을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다. 도서관 입장에서도 전자책이란 디지털화된 자료를 비치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 2. 전자책도서관 서비스 방식

#### 1) 관내 서비스 방식

관내 서비스 방식이란 특정 기관 및 단체 내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원하는 자료나 서적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전자책이 도서관에 도입되던 초기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활용도가 떨어져 일부 기업체에



서만 도입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 사내 인트라넷이나 보안 문제 등으로 관내 서비스 방식을 선호한다.

## 2) 관외 서비스 방식

관외 서비스 방식이란 한 마디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도서관의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IT기술과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등의 저작권 보호기술이 발전으로 가능하게 됐다.

현재 대부분의 초중고, 대학, 공공도서관들이 구축한 전자책도서관은 관외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관외 서비스 방식을 채택한 도서관들은 관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도 전자책을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외 서비스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책의 구매 방식. 현재 관외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종이책과 같이 도서관에 필요한 수량만큼 전자책을 구매하고 있다. 즉 종이책 5권을 구비했을 경우 이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5명인 것처럼, 전자책도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자책이란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 3. 전자책도서관 현황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대학, 공공, 사설 도서관 1250여 곳이 전자책도서관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공공도서관은 서울정독도서관, 서울광진정보도서관, 대전한밭도서관, 춘천시립도서관, 충북중앙도서관, 포항시립도서관 등 250여곳에 이른다. 대학 중에는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숙명여대, 한양대, 건국대 등 약 100개 대학이 전자책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등학교 또한 전국 900여 학교가 전자책도서관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